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정혜은** · 진미정***

이 연구의 목적은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경제학적 관점과 문화가치관 접근을 중심으로 가구소득, 교육수준, 자녀양육비, 가사노동조력, 정책 인지 및 욕구, 정서적·도구적 자녀가치관과 첫 자녀 성별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자료에서 한 자녀만 있는 기혼여성 690명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친정어머니가 생존할 경우, 사회적 지원 욕구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취업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낮을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첫 자녀가 딸인 경우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욕구와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핵심단어: 출산의도, 취업여부, 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요인

I. 문제제기

저출산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른바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어 1.6에서 1.8 수준으로 다소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출산율은 다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에는 1.30명으로 낮아졌다. 그 후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출산율은 1.2명 미만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2006).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 hyeeun05@snu.ac.kr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 mchin@snu.ac.kr

저출산 및 고령화현상의 장기적인 지속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부양부담의 증가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가위기론의 대두로 국가차원에서는 출산장려 및 지원을 위한 대규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행위는 경제 및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식 및 가치관이 복합되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이기 때문에(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5; Sleebos, 2003) 특정 정책을 통해 개인의 출산행위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출산율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무엇보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 원인을 파악한 연구가 국내외로 많이 진행되었고 이를 크게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거시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주로 국가 간의 비교나 출산율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국가 간 비교연구는 표본수가 작고, 출산에 미치는 다양한 정책의 조합의 효과를 구별해내기 어려우며(Lesthaeghe, 2000, Bernardi, 2005에서 재인용), 각 나라의 정치문화적인 차이 및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미시적 연구는 거시적 접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 결정 요인을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류연구, 2005)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인 접근으로 개인의 출산행위를 이해하고자 한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출산행위를 설명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신가계경제학을 들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부모는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자녀가 주는 효용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가족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녀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학 관점에 기초해서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자원으로서 가구소득, 교육수준, 가사노동 조력, 출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비용측면에서는 자녀양육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학 접근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출산의 효용측면에서 보고 있지만, 가치관을 비용-효용 관점으로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 1997).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한 사회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치관은 문화가치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적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기된 문화가치관 접근도 함께 고려하여 한국사회의 자녀가치관과 출산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학에서 출산율 감소를 설명하는 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주요한 변수로 다루어졌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초혼연령과 출산연령 상승 및 자

녀의 기회비용 증가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Brewster and Rindfuss, 2000). 이는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출산을 둘러싼 기회비용, 인적자원, 직접비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다르며(이문정, 2003), 부모와의 지원관계(정경희, 1997), 성역할 태도(김혜원, 1997),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실효성 인식(서소정, 2005; 천혜정, 2005)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취업여부에 따라 출산관련 요인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저출산은 취업여성 뿐 아니라 비취업여성에게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¹⁾ 단순히 취업여부에 따른 출산율을 비교하기보다는 각 집단의 출산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출산행동을 파악한 연구로서 공선영(2006)은 취업여부에 따른 희망자녀수를 살펴보았으나 희망자녀수는 실제 출산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이상적인 가족상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Livi Bacci, 2001) 실제 출산행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제행위와 연관성이 높은 출산의도를 경제학적 관점과 문화가치관 관점에 근거한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출산지원정책은 기혼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비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배지희·황인애·탁옥경, 2007). 본 연구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균형적인 출산지원 정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은 임신 및 출산이 포함된 수치인 합계출산율이나 완결출산율 등 결과로서의 출산율이 아닌 개인의 선택의 관점에서 출산행위를 설명하기에 더욱 적합한 출산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출산에 비해 둘째자녀 출산부터는 그 행위에 있어 비용편익의 사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수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과 양육비용의 증가와 같은 경제학적 요인 외에도 첫아이의 양육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인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출산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정석, 2007). 아마도 첫 아이의 출산과 양육경험으로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계획은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

1)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평균 출생아수 취업여성 1.8명, 비취업여성 1.7명으로 오히려 취업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력 조사》에서는 취업여성은 1.76명, 비취업여성은 1.78명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는 첫 아이 육아경험을 통한 부부간의 육아협력(박정희·장영애, 2003)과 부부간의 의견차이(천혜정, 2005)가 둘째자녀의 출산계획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통해 첫 자녀보다 둘째자녀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최소한 자녀를 1명은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있어서 첫 자녀에서 둘째자녀로의 이행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II. 여성취업과 출산에 대한 이론적 배경

경제학 관점에 근거하여 여성의 취업과 출산행위를 설명한 이론을 살펴보고 경제학적 접근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치관과 문화를 중심으로 출산행위를 설명한 문화가치관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학적 접근

출산율 저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사회학, 인구학, 경제학 분야에서 출산율 하락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학적 관점에 근거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신가계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부모는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자녀가 주는 효용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가족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녀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Esterlin, 1975).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비용은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각종 용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금전적 비용과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투입되는 시간비용으로 나뉘볼 수 있다(차경옥, 2005). 자녀양육의 시간비용은 결국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시간비용이며 그들이 다른 모든 대안활동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이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시간가치가 높아질 때 자녀생산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게 되며, 따라서 가계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서 일정 만족 수준을 유지하고 다른 재화의 소비를 위해 자녀의 인적자본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여정성, 1994).

또한 가계경제학자들은 출산행위와 소득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여,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구소비재의 구매의욕이 증가하는 것과 유사하게 정상재인 자녀의 수나 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Becker, 1981).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지출을 늘림으로써 자녀의 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한편 Okun(1975)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녀수가 감소하는 이유를 가격효과로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재화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자녀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므로 자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고 한다.

Leibenstein(1975)은 자녀로부터 얻는 효용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자녀 양육으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같은 직접효용, 자녀의 노동으로부터 얻는 간접적 효용, 노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필요에서 오는 자녀의 효용으로 구분된다. Becker(1960)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Leibenstein(1975)은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자녀 효용과 출산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자녀의 효용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접근에서 주로 다루는 비용, 소득은 여성의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진다(Brewster and Rindfuss, 2000).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임금은 가족의 소득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가족과 일이 분리된 근대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자녀양육에 드는 시간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자녀와 관련한 노동은 시간을 요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성은 취업과 자녀양육을 양립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자녀의 출산과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부적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Leibenstein, 1975, 이희연, 2003에서 재인용: Brewster and Rindfuss, 2000). 또한 취업으로 인한 경력상의 문제, 임금손실 등과 같은 기회비용은 취업여성에게만 유의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를 통해 취업여부에 따라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을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따라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학 관점에 근거하여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용측면에서 자녀양육비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가구소득, 여성의 교육수준, 정책인지 및 욕구, 남편과 어머니의 가사노동 조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구소득은 남편과 아내의 임금노동을 통한 소득을 의미하며 가계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원변수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인적자원으로서 부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고 셋째, 시장 및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 및 서비스도 가계의 자원이 된다는 면에서(강이주·김영신·허경옥, 2006) 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장려 정책 역사가 짧고, 이용률이 낮으므로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책인지 및 욕구 변수를 기초로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지수준이라는 개인의 주관적인 정보를 하나의 자원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자녀양육과 관련한 시간비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남편과 어머니의 조력을 시간자원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인 효용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워서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주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 않으며(Esterlin, 1975), 주로 선호가 고정되어 있고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 및 심리상태를 고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 역시 간과하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용과 편익측면에서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보다는 전통적인 유교가치관에서 비롯한 남아선호사상이나 가문계승과 같은 가족가치관이 강하기 때문에(이성용, 2003) 사회학분야에서 제기된 문화가치관적 접근을 고려하여 출산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문화가치관 접근

자녀의 가치를 비용과 효용관점으로 자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경제학 접근에 대해서 사회학, 인류학자들은 물론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인구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하였다. 같은 가부장 제도를 가진 사회라 하더라도 서구적인 형태가 결코 보편적인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경제적 이해의 관계나 모형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산력 변천에 대한 문화가치관 접근이 대두되었다(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 1997).

문화가치관 접근은 경제학적 접근과는 다르게 규범과 기호의 형성을 통한 행동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규제적인 면을 강조한다(김한곤, 1993). 이 관점에서는 출산력이 출산에 대한 무의식적인 규제와 의식적인 규제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출산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란 없으며, 결혼에 대한 규범, 자녀의 가치와 선호·양자의 관행 등이 출산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이며(권태환·김두섭, 1990), 가치관 및 문화와 행위자의 행동 간에는 분리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문화가치관 접근은 피임기술에의 접근성 증가보다는 출산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식의 확산에 주목한다. 사회체계 속에서 대중매체, 국가정책,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출산통제에 대한 이념이 확산된다고 보았다. 즉, 출산 조절에 관한 기회와 평가는 기회와 선호의 단순한 합을 넘어선 또 다른 실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이 개별 행위자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화라는 것이다(Pollak and Waikins, 1993).

문화가치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의 가족은 부모와 자식 사이를 경제적 이해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부모의 분신으로 여긴다. 따라서 자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담이라기보다는 자산으로 여긴다. 자녀의 성공여부는 부모의 책임 그리고 가족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출세의 기본적인 통로로 간주되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망은 매우 높다(권태환 외, 1997). 자녀에 대한 가치는 단순한 비용-편익 측면에서 파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둘째, 자녀에 대한 차별적 성선호이다. 유교전통의 영향으로 가족 내에서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행사와 가계계승의 필요성으로 아들이 중요시된다(이성용, 2003). 현재에는 아들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이 감소하였지만 남아선호가 관념적으로 남아있어 출산력 변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권태환 외, 1997).

본 연구에서는 문화가치관 접근에 입각하여 한국사회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관적인 요소로서 자녀가치관과 첫 번째 자녀의 성별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3,802명의 20-44세 기혼여성과, 2,670명의 20-44세 미혼남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상 연구대상을 조사시점 당시 첫 자녀만 있는 기혼 여성 690명으로 한정하였다.

2. 변수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1) 출산의도

출산의도는 이분변수로 측정하여 '앞으로 추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를 출산의도 있는 것으로, '앞으로 추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와 '추가 자녀 계획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를 출산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취업여성의 33.7%, 비취업여성의 46.6%가 둘째자녀 출산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2) 독립변수

(1) 경제학적 변수

경제학적 변수로 가구소득, 교육수준, 자녀양육비, 가사노동조력, 정책 인지 및 욕구를 살펴보았다. 교육수준은 4년제 미만을 포함한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취업여성의 45.0%, 비취업여성의 49.8%가 대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3개월간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측정하였으며 취업여성은 평균 334(표준편차=150.9)만원, 비취업여성은 평균237(표준편차=120.0)만원이었다.

자녀양육비는 가구에서 지출하는 월평균 교육·보육비를 측정하였으며 취업여성은 평균31.2(표준편차=23.0)만원, 비취업여성은 평균 16.1(표준편차=22.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사노동 조력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와 어머니 생존여부로 측정되었다.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남편이 주당 집안일과 자녀돌보기에 참여한 시간과 가사일 분담의 공평성 인지수준으로 살펴보았다. 가사분담 공평성 인식은 "남편과 가정일을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취업여성의 남편은 평균 8.3(표준편차=7.2)시간, 비취업여성의 남편은 평균 7.8(표준편차=6.7)시간을 주당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 공평성 인식은 취업여성은 평균 2.4(표준편차=.9), 비취업여성은 평균 2.3(표준편차=.9)으로 응답하였다. 어머니 생존여부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생존여부로 측정하였으며 취업여성의 89.7%는 친정어머니가 살아 계시다고 하였고, 86.2%는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다고 하였으며, 비취업여

<표 1> 취업여부에 따른 분석 변수의 빈도 및 평균

			취업여성 (N=282)	비취업여성 (N=408)
종속 변수	둘째아 출산의도	있음	95 (33.7)	190 (46.6)
	경제적 변수			
독립 변수	교육수준	고졸이하	155 (55.0)	205 (50.3)
		대졸이상	127 (45.0)	203 (49.8)
	가구소득(만원)		334 (150.9)	237 (120.0)
	자녀양육비(만원)		31.2 (23.0)	16.1 (22.6)
	가사노동 조력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	8.3 (7.2)	7.8 (6.7)
		가사분담 공평성 인지	2.4 (.9)	2.3 (.9)
		친정모 생존	252 (89.7)	370 (90.7)
		시모 생존	243 (86.2)	351 (86.0)
	정책 욕구도		9.8 (1.3)	10.0 (1.3)
	정책 인지	탄력적 근무제	.4 (.4)	.3 (.4)
		자녀양육 서비스지원	.6 (.4)	.6 (.4)
		자녀양육 재정지원	.6 (.3)	.6 (.3)
		휴가 및 휴직제도	.7 (.3)	.6 (.3)
	문화가치관 변수			
정서적 자녀가치관		3.44 (.5)	3.43 (.5)	
도구적 자녀가치관		2.32 (.5)	2.32 (.5)	
첫자녀 성별		180 (63.8)	216 (52.9)	
통제 변수	연령(세)		34.3 (5.5)	32.1 (5.5)

주: ()의 수치는 백분율 또는 표준편차임

성은 각각 90.7%, 86.0%로 나타났다.

정책 욕구 변수는 “국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와 “직장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은 ‘전적으로 지원해야한다(4점)’에서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1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국가가 세금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은 ‘매우 찬성(4점)’에서 ‘전혀 찬성하지 않음(1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에는 3문항의 점수 합을 사용하였다. 취업여성의 정책 욕구도는 평균 9.8(표준편차=1.3), 비취업여성은 평균 10.0(1.3)으로 비취업여성의 정책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변수는 자녀양육 재정지원제도, 자녀양육서비스제도, 휴가 및 휴직제도, 탄력적 근무제도에 대한 인지요부(인지=1, 인지못함=0)로 집단화하였으며²⁾

2) 자녀양육 재정지원제도는 영아보육료지원, 유아교육비지원과 기업체학비보조로, 자녀양육서비스제도는 직장보육시설과 방과후 교육으로 휴가 및 휴직제도는 유산·사산휴가제도, 출산 전·후 휴가

분석에는 각 하위정책별 인지도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에 비해 휴가 및 휴직제도와 탄력적 근무제도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화가치관 변수

문화가치관 변수로 자녀가치관과 첫 자녀 성별을 살펴보았다. 자녀가치관은 경제적 및 사회적, 심리적 가치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다는 선행연구(권용은, 김의철, 2004)를 통해 자녀가치관 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참고). 요인분석 결과, 자녀가치를 묻는 6개의 문항은 2가지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자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가치, 노년의 외로움에 높은 부하값을 보이고 있어 '정서적 가치'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가문계승, 사회에 대한 의무, 노후의 경제적인 도움, 당위적인 이유에 높은 부하값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묶어서 '도구적 가치'라고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전적으로 찬성(4점)'에서 '전혀 찬성하지 않음(1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분석에는 각 영역별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취업여성은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3.44(표준편차=.52), 도구적 자녀가치관은 2.32(표준편차=.55), 비취업여성은 3.43(표준편차=.51), 2.32(표준편차=.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 성별은 취업여성은 아들이 63.8%, 비취업 여성은 52.9%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서 만 연령을 측정하였다. 취업여성은 평균 34.3(표준편차=5.5)세, 비취업여성은 32.1(표준편차=5.5)세로 나타났다.

<표 2> 자녀가치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정서적 가치)	요인 2 (도구적 가치)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85	.0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72	.28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04	.82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11	.69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33	.67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5	.51
고유값	2.36	1.01
분산의 백분율	.39	.17
누적 백분율	.39	.56

제도와 육아휴직제도로 탄력적 근무제도는 시차별 출퇴근제도와 시간제 근무제도의 정책인지여부로 구성되었다.

IV. 연구결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제적 변수와 문화가치관 변수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형 I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경제적 변수, 문화가치관 변수 중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친정어머니의 생존여부, 사회적

<표 3> 취업여부에 따른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모형 I 취업 여성(N=282)			모형 II 비취업 여성(N=408)		
	b	s.e.	exp(b)	b	s.e.	exp(b)
상수	-1.60	2.90		6.66	2.12***	
통제변수						
연령	-.22	.04***	.80	-.25	.04***	.78
경제적 변수						
가구소득	.29	.28	1.33	.13	.21	1.14
교육수준1)	.40	.38	1.49	.41	.27	1.50
자녀양육비	-.01	.01	.99	-.02	.01**	.98
가사노동조력						
남편 가사노동시간	.06	.03**	1.06	-.02	.02	.98
가사분담 공평성 인지	-.03	.21	.97	-.05	.16	.95
친정어머니 생존여부	1.75	.91*	5.75	-.57	.47	.56
시아머니 생존여부	.63	.66	1.89	.12	.43	1.13
정책 변수						
사회적 지원 욕구	.24	.14*	1.27	.03	.10	1.03
자녀양육재정지원 인지	-.78	.50	.46	-.41	.37	.66
자녀양육서비스지원 인지	-.39	.54	.68	.39	.40	1.48
휴직제도 인지	-.98	.84	.38	.42	.53	1.52
탄력근무제도 인지	.49	.58	1.63	-.56	.42	.57
문화가치관 변수						
정서적 자녀가치관	1.11	.39***	3.04	.58	.27**	1.78
도구적 자녀가치관	-.03	.35	.97	-.16	.27	.85
첫 자녀 성별2)	-.03	.36	.97	-.51	.26*	.60
d.f.		16			16	
Likelihood Ratio		105.73***			125.26***	
-2 Log L		225.04			380.73	

주: * p<.10, ** p<.05, *** p<.01
 1) 가변수 (1=대졸 이상, 0=고졸 이하)
 2) 가변수 (1=아들, 0=딸)

지원 욕구,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주당 1시간 증가할수록 출산의도할 승산은 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가사분담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친정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출산을 의도할 승산은 약 5.8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정어머니는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을 맡아줄 양육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산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1단위 증가할수록 출산을 의도할 승산은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욕구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는 Altshuld(1994)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할수록 출산을 의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출산을 계획한 사람이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정책인지와 관련해서는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여성들이 정책효과에 대해 불신하고 있거나 정책들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출산휴가의 사용이 '죄를 짓는'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조직 분위기,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안감,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조직전반에 팽배해한 직장문화(원숙연, 2005)를 고려해본다면 정책의 인지와 실제 사용 간에는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가치관 변수 중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1단위 상승할수록 출산을 의도할 승산은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구적 자녀가치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녀의 전통적 가치관(노후보장, 가문계승 등)은 크게 감소하고 정서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자녀관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용익, 2005; 신연희·조은경·정자영, 2005).

비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형 II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경제적 변수, 문화가치관 변수 중에서 자녀양육비, 정서적 자녀가치관, 첫째자녀 성별이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자녀 양육비가 1만원 증가할수록 출산을 의도할 승산은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비 부담으로 인해서 자녀 출산을 꺼림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관이 1단위 증가할수록 출산을 의도할 승산은 78%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자녀가치관과 출산의도는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첫 자녀가 아들이면 둘째 자녀의 출산을 의도할 승산은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에는 남아선호사상이 약해졌다는 주장(이성용, 2003)과는 반대로 첫째가 남아인 경우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취업여부에 따라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변수, 문화가치관 변수로 범주화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작용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로부터 한 자녀만 있는 기혼여성 690명 자료를 추출하여 취업여부에 따라 관련변인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친정어머니가 생존할 경우, 사회적 지원 욕구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변수 중 시간 자원이 되는 가사노동조력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여성이 일-가정 양립의 문제에서 시간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취업여성에게 국가 및 직장에서 제공하는 정책의 영향은 미비한데 비해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행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정책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공적인 지원보다 사적인 지원이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끼침을 시사한다.

둘째, 비취업여성의 경우 첫째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자녀양육비가 낮을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첫 자녀가 딸인 경우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여성은 가사일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기대됨으로 남편과 부모로부터의 지원이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인지 및 욕구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출산장려정책이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정책혜택이 주로 직장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취업여성에게는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남편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정책도입 및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같은 현 정책

의 방향이 비취업여성의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서적 자녀가치관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두에게 출산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의 자녀가치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김승권, 2004)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가치는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흥미롭게도 도구적 가치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치관의 유형에 따라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권용은·김의철, 2004)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문계승, 노후의 경제적 지원, 사회적 의무 등의 도구적 자녀가치관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취업여부에 따라서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다. 취업여성은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과 친정어머니의 생존여부, 정책 욕구가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취업여성은 자녀양육비와 첫 자녀 성별이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비 지출과 첫 자녀 성별은 비취업여성에게만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는 비취업여성이 자녀양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아출산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 높기 때문에³⁾ 출산계획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여성 뿐 아니라 비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집단의 욕구와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을 장려를 위한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비가 출산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통해 취업여성 뿐 아니라 비취업여성에게도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지원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최근에 취업여부나 계층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서 아동수당도입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과 실행이 요구된다. 또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취업여성 뿐 아니라 비취업여성 역시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김선미, 2004) 전문적인 보육지식과 일시보육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

3) 비취업주부는 아들을 갖지 않았을 경우 아들을 가진 엄마들에 비해 낮은 심리적 안녕을 보인다(김혜원, 1997)는 연구결과 통해 비취업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남아출산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나(배지희 외, 2007)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녀양육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취업여성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욕구는 출산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 인지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유무와 별개로 정책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마련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 및 사회 내의 문화적인 환경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여성의 경우 친정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 출산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친인척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영미(2005)연구에서는 영아를 둔 취업여성은 가정 외 기관이나 시설보다 어머니나 가까운 친인척 보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인 보육제도의 확충 뿐 아니라 개별가정에서 수행되는 양육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취업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조력자로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출산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 및 구조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일정한 유형화된 단계를 거치므로(정현숙·유계숙, 2003) 가족발달 단계에 맞는 가족생활프로그램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과 관련하여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취업여성, 비취업여성 모두에게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자녀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부담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 노인수발 등 주로 여성이 담당해왔던 돌봄노동은 생산범주에서 벗어난 비경제활동으로 인식되어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마저 평가절하 되고 있는 실정이다(문숙재·윤소영·김은희, 2002). 따라서 돌봄노동을 인간을 다루는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인지변수로 정책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정책을 인지하는 것과

실제사용 간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효과라고 보기 힘들고, 모의 생존유무로 어머니로부터의 지원을 살펴본 한계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변수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기혼여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지 않고, 취업여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름을 밝혔다. 이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들이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욕구에 맞는 정책들이 균형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이주·김영신·허경옥 (2006) 《(알기쉬운)가계경제학》 신정.
- 공선영 (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119-149.
- 권용은·김의철 (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11-226.
- 권태환·김두섭 (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 (1997)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 김승권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27(2): 1-34.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박세경·이건우 (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선미 (2004) “전업주부의 ‘자식 키우기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생활과 학회지》 13(4): 537-553.
- 김용익 (2005) “저출산의 현황과 정책방향” 《서울시민의 저출산의식 실태와 출산인식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3): 97-116.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5) 《출산력 저하의 원인-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김한곤 (1993) 《한국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김혜원 (1997)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구조적 변인, 성역할태도, 역할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11-127.

- 류연규 (2005)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숙재·윤소영·김은희 (2002) “무보수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0(10): 161-176.
- 박정희·장영애 (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31-44.
- 배지희·황인애·탁옥경 (2007) “영유아기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전업 주부의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225-254.
- 서소정 (2005) “저출산 가정의 자녀 양육실태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 내 비교 분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27-136.
- 신연희·조은경·정자영 (2005) 《서울시민의 저출산의식 실태와 출산인식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여정성 (1994) “기혼여성의 취업과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2(3): 71-83.
- 원숙연 (2005)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와 현실-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4(2): 157-188.
- 이문정 (200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영아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 10(3): 173-195.
- 이삼식·정운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신인철·도세록·조숙경·강주희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용 (2003) “남아 선호와 출산력간의 관계” 《한국인구학》 26(1): 31-57.
- 이영미 (2005) “취업모의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95-104.
- 이희연 (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법문사.
- 정경희 (1997)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족구조 및 세대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997년 전기사회학회 발표문: 213-216.
- 정현숙·유계숙 (2003) 《가족관계》 신정.
- 차경옥 (2005)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37-148.

천혜정 (2005)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37-148.

통계청 (2006) 《사회통계》.

Altschuld, J. W. (1994) *Resource Materials for Needs Assessment* The Ohio University.

Becker, G. (1960) *A Treatise on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1981)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3: 210-240.

Bernardi, F. (2005) "Public Policies and Low Fertility: Rationales for Public Intervention and Diagnosis for the Spanish Cas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5(2): 123-138.

Brewster, K. L. & R.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71-296.

Esterlin, R. (1975) "A Framework for Fertility Analysis" *Studies in Family Planning* 6: 54-63.

Leibenstein, H. (1975)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Declin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 1-31.

Livi Bacci Massimo (2001) "Comment: Desired Family Size and the Future Course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suppl): 282-289.

Okun, A. M. (1975) *Equality and Efficacy: The Big Tradeoff* Brookings Institution Press.

Pollak, R. A., & S. C. Watkins (1993) "Cultural and Economic Approaches to Fertility: Proper Marriage or Mésallia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67-496.

Sleebos, J. E.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007. 12. 9 접수 | 2008. 3. 25 채택]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Hye-Eun Chung · Mee-jung Chin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that influenced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whether the factors related to the intention of having a child differed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National Survey on the Trend of Marriage and Birth. This survey was conducted in 2005 by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ample consisted of 690 married women who had one child(282 employed and 408 unemployed). The data were analyzed by logistic regression with SAS 9.1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mployed women's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was affected by the husband's hours of housework, having a own mother(child's grandmother) and the perception of value of child. The employed women's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was affected by the perception of emotional value of child, and the sex of the first child. In sum,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employed women and the unemployed women in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Perception of value of child was found important for both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women. Besides husband's hours of housework, having a mother and the needs for public support about child birth and rearing were found significant for the employed women. For the unemployed women, the costs of child care/education and the sex of the first child were found signific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different policy interventions be developed to satisfy the needs of the employed women and the unemployed women.

Keywords: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Employ status of married women, Economic factors, Cultural factors